

연중 제17주일

기도서	402면 (C해)
제1독서: 창 세	18, 20-32
제2독서: 골 로	2, 12-14
복 음: 루 가	11, 1-13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루가 11, 10).

□ 강론



신앙인과 기도

김진석 신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기도는 잃어버린 예술이 되어버린 듯하다. 기도는 아름다운 것이요 필요한 것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할 줄 몰라서 못한다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므로(루가 18, 1),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기도는 믿음을 지탱해 주고 성장시켜 주는 힘이다. 기도를 도의시하면서 믿음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뿌리없이 성장하는 나무를 상상하는 것처럼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선입관 때문일 것이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기도서를 비롯하여 교회가 만들어준 각종 기도문을 읽거나 외우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고 근엄한 예의와 격식을 갖춘 다음에 격조높은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여 하느님을 설득하고 그 결과로 하느님을 자기 계획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기술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이나 게으름의 결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느님이라는 초인적인 해결사를 불러내는 호출신호를 기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기도란 그렇게 까다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와 그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따르는 자녀 사이에 주고 받는 대화라고 오늘의 전례, 특히 복음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너그럽고 이해심이 가득한 분이다. 또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성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버지의 이러한 특성(약점일지도 모른다)을 잘 알고 있는 자녀라면 아버지와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없다. 감사해야 할 일, 상의할 일, 잘못에 대하여 용서 청하는 일, 도움을 청하는 일 등등을 스스럼없이 토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녀를 대견스럽게 여기며 갖은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단한 존재들이다(로마 8, 15).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저 높은 곳에 고고히 앉아 계시며 우리의 잘 잘못을 따져 상이나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없이 자비하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상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녀의 태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대할 수 있다. 하느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신뢰하며, 그분과 더불어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을 바탕으로 진실되고, 뜻뜻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광주 가톨릭대학)



처녀의 가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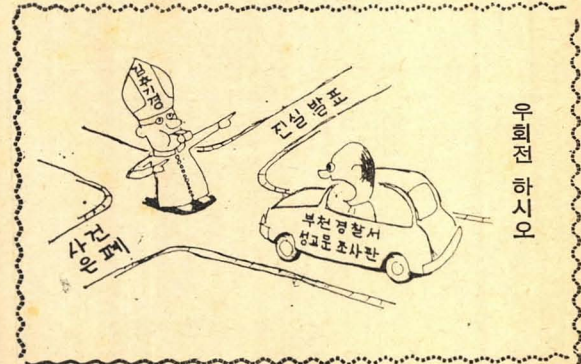
어찌서 홀로코스트라는 미니 시리즈 영화에서 눈을 빼기가 어려운가? 사람들의 평화를 짓밟는 나치스 독일, 필박을 받는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풀자고 호소하는 노(老)사제의 강론, 남의 이야기만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 악랄한 폭정에 시달리는 유대인들을 보노라면 몸을 뒤척이기도 끔찍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한 근로 여성에게(그녀를 위장취업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갖는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 처녀에게) 성(性) 고문을 했대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하기가야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랄지는 몰라도, 그 문제는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머니에게 태어나지 않고, 누이도 없고, 딸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길지는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머니를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제 어머니가 그런 꼴을 당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관심있는 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헌법에 대해 침을 튀기며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기에 바쁘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정치제도, 백번 고치면 무엇하나! 헌법을 고치고 정치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국민들을 보다 인간답게 살게 해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서는 엉뚱한 말로 둘러대는 당국자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이러다 보면 국민들은 정치를 말장난 정도로 몰리고, 죽이 끊든 밤이 되든 무관심하고 친하게 지내게 된다.

인간은 하느님 창조물의 극치이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한 여성을 통해서 다시 하느님의 창조사에 동참한다. 그러한 여성을 성적으로 고문하다니.....!

숲정이 산책



우회전 하시오

□여름날의 기도

주여, 시간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기 저기 다니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모두 바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뒤흔아 가느라
 시간을 아끼느라고 모두 그저 달렸습니
 안녕, 미안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또 올게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도와드리질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생각하고 읽을 겨를이 없고 바빠서 죽
 을 지경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고픈 기도도 못합니다

주여, 그들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들은 숙제를 하느라 지금도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학습거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있으니 지금도 시간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들이 있으니 지금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병들었으니 치료를 받아야겠는데 지금은 시간
 이 없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다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린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네 인생을 너무나 인간적으로만 보
 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처리할 시간은 언제든지 있다. 따라서 하느님이 우리에
 게 요구하시는 순간마다 우리들은 자신을 송두리째로 바쳐야 한다. 성바오로출판사-「삶의 모든 것」중에서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여, 혹시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게 아닙니까?
 한 시간이 너무 짧고 하루가 너무 짧고
 일생이 너무 짧은 게 아닙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주여
 주님은 사람들이 시간과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시고 웃
 음이 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알고 계시기에
 시간을 사람들에게 배정하시는 일을 잘못하실 리 없고
 주님의 안배대로 시간을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시간을 잃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총이긴 하여도 헐사리 없애지고
 보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은총입니다.

주여, 제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일생의 햇 수, 날 수, 시간 수
 모두가 다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조용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완전무결하게 채우는 것
 입니다.

□성서교실 ㉞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루가 11:13)

「한밤중의 친구 비유」(루가 11:5-8) 다음에 「나는 말한다」의 서언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의 교훈이 계속되고 있다. 16장 9절에도 같은 형식의 비유 교훈이 나오고 있다
 (18:6 참고). 마태오에도 이 내용이 나오나, 마태오의 것은 산상설교 가운데 나오는데, 그 전후의 연
 결이 잘 안된다. 그러나 루가에 나오는 비유와 그 연결이 잘 되고 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루가 11:13). 마태오의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여기서는 「하
 늘의 아버지」로 되어 있다. 원문(原文)상으로는 「하늘의」가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서(엑스 우라누)」로
 되어 있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마르시온의 영향이라고 하는 설(說)도 있으나, 「하늘에
 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 같다. 그러나 뜻은 「하늘의」와 같다.

다음에 마태오의 「좋은 것」이 성령으로 되어 있다. 성령을 초대 교회에 있어서 열렬히 간구되었던 바
 루가가 이것을 삽입하지 않았는가 싶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구하라고 했다가보다 오히려 승천 후에 준
 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다(루가 24:49, 행 1:4,8, 요한 7:37).

이것은 앞에 나오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물론법(勿論法)에 의해서 기도에 대한 자신과 열심을 불러 일
 으키려는 것이다. 전자가 「빛」의 관계인데 대해서 이것은 「침자」의 관계라고 하는 점, 악하고 사랑이
 없는 인간과 선과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비교를 통해서 이 화법(話法)은 일층 강하게 청중의 마음
 에 호소하고 있다(시 27:10, 103:13)

「성령」은 루가에 의해서 가필되었다 하더라도, 성령을 구한다면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은 기도에 대한
 최대의 약속이다. 「성령은 모든 선물의 최선이며, 이것이 주어진다면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벤
 겐은 말했다. 다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직 원 모 집

모집인원 : 관리자 1명(남) · 사무원 1명(여)
 자 격 : 영세한지 3년 이상의 신자
 운전면허 소지자(관리자)
 제출서류 : 세례증명서 · 호적등본 · 이력서 각 1통
 접수마감 : 7월 30일(수) 오후 6시

동 산 천 주 교 회

74-4614·76-1289

회소식!

독사뱀 물린사람 전문 치료
 함. 五代계
 연락처 : 전주시 전미동1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시내버스 번호 ㉞㉟㉠번차
 전화 ㉞ 3544
 송 준 의(발라바)

母 김 생 기
 산부인과

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홈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교 구 소 식

1. 50주년 상임위원회 : 8월 1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2. 각 분당 청소년분과위원장 모임 : 8월 3일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3. 성서 40주간 신약반 개강 : 30일(수)·31일(목) 오전 10시, 장소-교육관
4. 수녀연합회 : 8월 4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강의-사이비 종교, 강의-노길명 교수(고려대), 어머니들 강의 경청 가능함

□ 방송안내 : 이리 기독교(C·B·S)방송 특집좌담-「언론의 자유」
출연-김영신 신부(해성학교)·김동준 신부(사목국장)·김준호 신부(홍보국장)·김마리아 수녀(성바오로여자수도회)·한상갑 선생(해성학교)

방송시간 : 본방송-8월 7일(목) 오후 2시, 재방송-8월 8일(금) 아침 8시, 삼방송-8월 17일(일) 오후 3시 신자들 많은 청취바랍니다

★ 축! 영명 : 성 이나시오(31일) 성태수·안철문 신부님 축하합니다

교사학교 개설 : 초·중·고교 교리교사를 위한 교육과정

- ① 과목 : 성서, 교리교수법, 전례, 프로그래밍, 테크리에이션, 리더쉽, 청소년 이해, 상담지도론, 청소년활동
- ② 일시 : 1기-1986. 9. 1~13, 1986. 11. 3~15(매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2기-1987. 1. 12~18(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 1·2기중 선택
- ③ 수강료 : 2만원
- ④ 접수 : 1기-8월 18일까지, 2기-12월 12일까지, 교육국으로(5-0041)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91 : 1~4 복음 : 마태오 9 : 35~38

♣ 잡 간 !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정의가 없으면 전 인류가 영원히 갈구하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며, 잠정적으로 휴전이 유지되는 상태만도 아니며, 또 어떤 전체적 지배자에 의해 강요된 침묵의 상태만도 아니다. 「평화는 한마디로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가르킨다」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사목현장이 밝혀주고 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의 빛을 받고 하느님이 인간의 가슴속에 심어 주신 양심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이 세상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가지며 그 복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시민강좌를 마련, 전주 중앙분당과 군산 오통동분당, 이리 주현동분당 등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교구 정평회에서 주관,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민강좌(오통동 분당)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뜻있는 만남

신대인본당(주임 : 범영배신부)에서는 예비자들의 애색감을 덜고 신자들과 좀더 빠른 동화를 위해서 예비자들과 일반 신자들과 잦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는데- 특히 분당 사목회원들과 예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천주교회는 냉정하다” 처음으로 교회에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교회의 첫 인상을 이렇게 말했다. “옛날 말이겠지...” 하지만 사실 지금도 따뜻한 친절미가 부족하지 않을까? - 이런 관점에서 분당생활의 이모저모, 교회살림과 사목회 활동 등,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 가까이 일치하고 따뜻한 형제애를 보여주는 사목회원과 예비자의 만남은 꼭 좋은 본보기 같다.

성인병 치료의 신약 영지
※ 직접 참나무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함열 영지 농장

함열읍 와리 동지부락
(마울회관 뒤)
전화 (0653) 6-1107
한 상 현(요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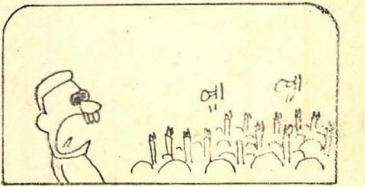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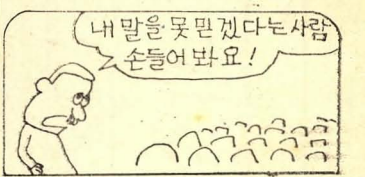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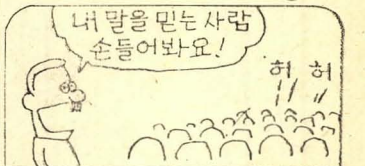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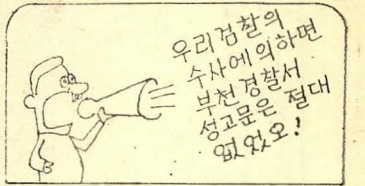
사원 모집 공고

당사는 KS포시 허가공장으로 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역 : ○명 ①자동차·지게차 운전기사
운전경력 3년이상, 35세미만 성실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
②생산직 : ○○명, 45세미만 신체 건강한 남·여
2. 제출서류 : ①이력서(사진첨부)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신원증명서 1통 ④면허증사본 1통
3. 기간 : 8. 8. 9일한 본인 직접 행사

신흥콘크리트 전주시 효자동 2가 53-2
☎ 2-6016·2-2519

요심이(677) 김병오



깊은 믿음은 독서로 얻습니다	
성인용	
하느님께의 신뢰	1,600원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것인가?	2,500원
장터의 어둠	1,500원
꽃피는 봄	800원
청소년	
같이 익을 무렵	1,400원
삼으로부터 온 빛	1,400원
나는 데이빗	2,000원
다나의 일기	1,700원
누가숨김없이말해줄까	1,300원
아동용	
우리의 세계는 신비하다	1,500원
되돌려 받은 선물	1,800원
보리수 피리	1,500원
바람과 금전화	1,300원
그림책	
날마다의 기도	1,200원
자케오 아저씨	1,500원
착한마음 고운마음	1,200원
부자와 나자로	1,200원
성바오로서원 개원시간	
월~토 : 오전 9~오후 7시30분	
일요일 : 오전 10시~오후 4시	
※ 매월 마지막 일요일만 문 닫습니다 ☎ 3-3398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 여름성경학교 어린이들에게 수고하신 자모회원들.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1. 금주는 성체주간입니다: 성체성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2. 중·고등학생 하기캠프: 28일~30일까지 장소-고산 남봉수영장, 참가비-1인당 3천원씩 준비교육-23일-27일, 부모님들의 협조바람
3. 부녀회 월례회: 29일 어머니미사 후
4. 구역봉사자 모임: 30일 저녁미사 후 각 구역담당 봉사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성지순례봉사단 현지답사: 오늘 오전 8시 출발했습니다. 본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아직 제출 못한 구역장님들은 속히 제출하세요 참가비-성인 5천원, 학생 2천원
6. 세대별 신자카드: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빠진 가정의 카드를 속히 제출하세요
7. 신축기금 속히 납부합니다: 여러분께서 약속하신 신축기금 납부기일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8. 공소 순회미사: 8월 2일 저녁 8시-신교리공소
9. 금주전례: 해설-이종관, 독서봉헌-조흥기 부부 신자기도-박상규 부부, 촛불봉헌-전태권 부부 차주전례: 해설-임영민, 독서봉헌-안재홍 부부 신자기도-최재인 부부
□ 지난주 봉헌금: 660,740원 아파트: 192,750원
지난주 교무금: 449,000원 아파트: 422,000원
지난주 신축금: 349,000원 아파트: 35,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2-5238

-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첫철례 7: 8월 2일 저녁 8시
3. 중고생 하기캠프: 28일~30일, 장소-고산친
4. 재속형제회: 오늘 오후 2시
5. 어머니성가대 월례회: 8월 1일 오전 11시
6. 첫영성체교리: 31일부터 오후 3시
7. 주민등록등본 제출: 31일까지
8. 예비자교리: 주일 공식미사후-원장수녀님 지도
목요일 저녁미사후-본당수녀님 지도
9. 여름성경학교에 협조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교리교사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주일학교 방학: 어린이미사-토요일 오후 4시
11. 전입자: 윤선희씨 가족 5명 환영합니다
12. 여름성경학교 선물(T샤쓰) 협조하신 분: 정누시아·박아네스·이메레스·최가타리나·구데레스·김아네스·백모니카·진마텔다·백말셀리나·백로사·노아나다시아·김갈라라·서말다·허제노베파·허가타리나·한엘리사벳·남엘리사벳·최누시아·염베로니카·김세레피나 (20명)
13.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장동주 ②이갑진
봉헌-박상기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경자, 독서-①천 진 ②강기연
봉헌-최창기씨 부부
※ 해설·독서·봉헌하시는분 정장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67,210원 교무금: 562,31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1. 우정의날(30일): 취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의날
2. 첫영성체 교리: 28일~8월 9일 오전 9시
3. 여름성경학교: 8월 4일~9일 오전 9시
4. 중·고 특별교리: 8월 4일~9일 오후 4시
5. 중·고 하계수련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6. 청년회 특별모임: 27일 공식미사 후
안건-청년회 수련회
7. 순정이 은인을 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0,750원 교무금: 26,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2. 사목회: 31일 오후 8시
3. 공소미사: 27일,
마음리-오후 2시, 광곡리-오후 5시
4.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2성당-28일~8월 1일까지
5. 중고생 하기수련회: 28일~30일까지 (2박3일)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6. 2성당 성인 예비자교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7. 평화동성당 신축현금: 익명-10만원
8. 감실 구입현금: 익명-1만원, 차진석-1만원, 임선경-1만원, 익명-20만원
9. 사제양성 후원금: 박미란-1만원, 익명-2만원
10. 금주봉헌: 본당-장현주 부부, 2성당-김강미
차주봉헌: 본당-한형수 부부, 2성당-오수환 부부
11. 차주전례
본당: 해설-고정수, 독서-①강기호 ②진성복
2성당: 해설-함문권, 독서-①정형식 ②박병환
□ 지난주 봉헌금: 본당-314,950원, 2성당-130,110원
계-445,06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페이지사무실 83-5085번

- ☆ 오늘은 50주년 특별현금 주일입니다
1.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2.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대상-상임위원 및 구역반장
3. 성가정회: 8월 1일 11시 미사있었습니다
4. 감사: ①자모회 피에타상 기증-공식미사 후 축성식
있었습니다
②주일학교 하계교리서 어린이 간식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5. 중고생 하계캠프: 28일~30일 (2박3일)
6. 글로리아성가대 하계수련회: 8월 1일~3일 (2박2일)
장소-남원 욱모정
□ 지난주 봉헌금: 1,090,010원 교무금: 624,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사목회 임원 보강: 총회장-이정선
부회장-유병환·정원희·하준주
선교분과-권성윤·송영성, 교육분과-강정주·김원석
제정분과-이창욱·이영자, 전례분과-김인규·김금자
사회복지분과-최승기·진효철,
여성분과-국혜원·조용애, 홍보분과-김용대·황문순
구역분과-김홍두·박경순, 애병분과-김정곤·배당녀
청소년분과-남상용·박수환
2. 전례연구위원(겸, 월보 편집위원)
우기도, 김태진, 박 희, 양철성, 김선균, 이순덕,
강문숙, 박금숙, 정정수, 이 경, 정원희, 이정선
3. 교구 사회복지회에 100만원(어린이 수술 위해)
4. 섬모기사회: 8월 2일 오후 1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1,119,750원 교무금: 764,500원